

축령복음병원

병원연혁



辛相哲 원장

- 1986. 4.19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 법인 설립
인가
- 1986. 4.24 의료기관 개설허가(44병상)
병원장 신상철
- 1988.12. 1 신축병원 건물기공
- 1989. 9.30 병원준공(196병상으로 증설)
- 1993.10.30 서울시립축령정신병원(200병상)
위탁운영 지정
- 1994. 3.25 서울대학병원과 자매결연
- 1994.11.12 보건복지부 수련병원 인가(정신과)
- 1997. 4. 3 서울시립축령정신병원 개원



▲ 포크댄스시간에 환우들과 치료진이 함께 춤추는 모습



▲ 정신보건센터 개소

祝靈福音病院은 정신과 특수병원으로 지금부터 11년전인 1986년 4월 19일 京畿道南楊州市 水同面 外坊里 174번지 축령산 기슭에 세워졌다.

이 병원 설립자인 辛相哲院長은 서울의대를 졸업후 정신과 전문의이자 신앙인으로서 의료시혜를 통한 신앙적 실천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78년 5월부터 87년 4월까지 한국의료선교협회 소속인 복음병원(서울, 금호동소재)을 운영하면서 의료시혜를 통한 의료선교활동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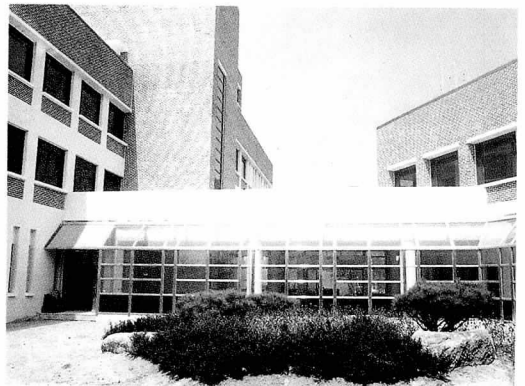
그후 79년 한국의료선교협회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새로운 선교방향을 정신건강사업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으로 설정하고 정신건강의료원 건립계획을 세웠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실천하지 못하다가 86년 누구인가 해야할 일이라고 판단하여 정신질환 예방사업 및 치료사업은 물론 무의촌지역인 이곳 노인들과 의료보호환자들에게 의료혜택을 펴고자 축령복음병원을 개원했다.

이어 후원장은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3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동서울의원 빌딩 2층에서 정신보건법

에 근거한 「정신보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정신보건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과와 축령복음병원이 협동운영키로 하여 병원측도 운영비의 일부와 의사, 간호사, 사무직등 실무요원을 파견키로 하여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이 센터의 설립근거가 된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것은 95년 12월 30일, 이 법률시행령은 96년 12월 31일, 그리고 법시행규칙이 97년 3월 1일 시행되었는데 민간의료기관과 협동운영(위탁계약체결)하는 정신보건센터는 용인정신병원에 이어 축령복음병원이 두 번째이며 행정관서주도의 형식보다는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3백여명의 정신과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이 병원은 경쾌된 정신과 환자의 재활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금년중에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병원구내에 건립키위해 기금을 계속 확보중에 있다. 그런가 하면 후원장의 활동과 봉사정신을 행정관서에서도 인정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업에 45억을 투입하여 건립한 200명상의 「서울특별시립축령정신병원」을 축령복음병원에 위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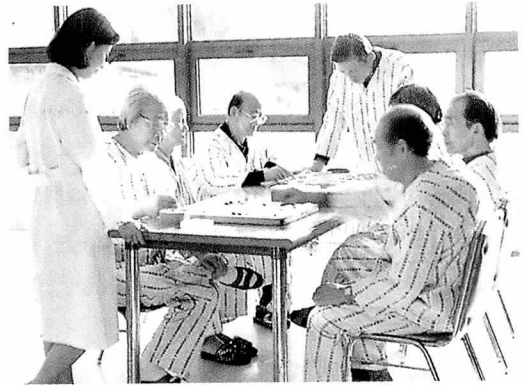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립축령정신병원

키로 하고 지난 4월 3일 개원식을 가졌다.

이로써 축령복음병원은 전체환자 수용능력이 5백여명의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성장했으며 전문의 9명, 정신과 전공의 6명, 간호직 30명의 의료진을 비롯해 75명의 직원들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자의 다양한 주간치료 프로그램과 알콜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국내병원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전문음악치료, 수려한 축령산 중턱에 소재한 지리적 이점을 살린 산책과 등산 프로그램, 연중 실시하는 보호자교육, 전임원목이 인도하는 예배 및 성경공부, 藥物治療나 理學療法 이외에 이 병원 사회사업과의 협력을 얻어 실시되고 있는 미술요법, 서예요법, Folk Dance와 에어로빅, 사회기술훈련, 요리실습, 작업자모임, 단주모임, 또래모임, 노인환자모임, 한울타리모임등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심층적이고도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축령복음병원의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환자의 상태나 증세에 따라 개방병실과 폐쇄병실을 선택하며 조용한 병원분위기여서 사고가 거의 없으며 개방병실에도



▲ 노인정신(치매)병동

환자 형편에 따라 독실, 2인실, 3인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보통의 정신병원과는 달리 보험환자와 보호환자, 나아가 직원들의 식단까지도 똑같은 것과 보호자가 없고 또 재활요법에 참석하여 간식비를 마련할 수 없는 행려환자에게도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식비를 제공해주는 것도 이 병원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축령복음병원은 이곳에 병원을 설립하면서부터 가장 관심을 가졌던 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첫 결실이 우리나라의 정신과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환자의 집(늘푸른 집)」이 작년 12월말에 문을 열고 환자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시설은 병원에서 대지를 제공하고 환자보호자가 일반 가정집과 같은 건물(30여평)을 지어주어 시작된 것이다. 아직 식사는 병동을 이용하고 있지만 투약을 비롯한 나머지 일과는 환자들이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또한 재활센터에 대한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후원회가 결성되어 1억8백만원을 모금하여 현재



▲ 작업요법실

공사에 들어가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71평 규모의 재활의 집도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이 병원은 재활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5단계 직업재활치료계획을 세워 추진키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단계, 재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배우기 쉬운 봉투작업, 세탁물정리, 꽃가꾸기, 원예등을 들 수 있다.

2단계, 1단계에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해 다음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봉투작업 보다 조금 어렵고 단가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참여시키고 병원전담청소반을 조직하여 청소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교육해 실시하는등 작업요법인 봉투만들기, 인형눈작업, 뜨개질, 환의수선, 전담청소반, 가내수공업

3단계, 1, 2단계를 거친 환자로 동물사육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교육, 채소재배, 봉제 기술 교육등을 들 수 있다.

4단계, 가고용단계로 작업센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내 직장에 출근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등 병원과 계약을 한 지역사회내 직장에서 다소 숙련된 작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매점운영, 세차장실습, 주



▲ 동물사육장

유소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 5단계는, 가장 세밀한 기술을 배우는 단계로 1단계부터 시작하여 참여한 환자부터 중간에 참여한 환자까지 능력을 평가해 참여시킬 계획인데 이를 위해 공장과 연계해 필요한 장비와 기계는 회사에서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작업기술을 가르치고 시간계획에 따라 방문 지도한다.

이와 같이 5단계 직업재활치료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환자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에 복귀해서 적응하여 스스로의 생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병원은 辛相哲원장은 의사이지만 아현감리교회 장로로서 독실한 신앙심과 의술을 접목한 인술을 베풀면서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밝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삶을 가꾸어 가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갖고 병원 운영에 천념하고 있다.*



▲ 실습실(목각, 그림, 도자기, 공예)